

조 총장 4선 '불출마' 총장 선출제 논의 재개

조인원 총장 임기 만료 3달 앞두고
대평의-법인, 개정안 협상 난항

9월, 개정안 협상 '시간싸움' 돌입
개정 데드라인은 9월 21일이 유력

8·29 총장 선출제 개정 무산되자
올해 말 총장 공백 우려도 부상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제 임기는 11월 23일로 마감합니다." 우리학교 조인원 14대 총장이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4선 불출마 뜻을 전했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우리학교 12·13·14대 총장을 역임했고, 오는 11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 총장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분이 앞으로 우리대학을 이끌어 같으면 좋겠다"며 "우리대학이 견지해 온 가치에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차기 총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렬 상태에 있던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도 오는 9월 4일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시간싸움'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11월 23일인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장 선출제 개정안은 법인과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이견으로 확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평의는 법인소위원회 개정안과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도입을 각각 주장하며 연일 공방전을 펼쳤다. ▶관련기사 3면

대평의 내부에서까지 법인의 '시간 끌기 전략'에 알고도 당했다는 흑phem이 나오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도 총장 선출제 개정이 시간에 짙기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회장은 "총장 선출제 개정은 교육부 승인까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 진척이 없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9월 말까지 법인과 대평의가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인 이사회에 개정안 통과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법인과 대평의 양 측이 제시한 개정안 모두 후보 추천-압축-선임 3단계 과정을 골자로 두고 있어, 총장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적 여유가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이다.

두 안과 비슷한 총장 선출 절차를 가진 고려대와 서울대는 후보 압축 단계에만 각각 3달과 4달의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4년, 고려대는 10월 1일 19대 총장 선출 일정을 시작해 12월 22일에야 후보 압축을 마쳤다. 올해 서울대 27대 총장 선출 역시 총장 후보 압축 단계에서만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4달 가량 소요됐다.

이처럼 타 대학 총장 선출 사례에서 후보 추천-압축 단계에만 보통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총장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해선 늦어도 9월 안에 관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장 선출제 데드라인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1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대평의가 차기 총장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에서만 선출·임명하자고 앞서 공언한 점 역시 총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행정과 재정 등 우리학교 주요 정책과 사업 결재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만큼, 대학 운영 전반의 정체될 가능성성이 크다. 하지만 법인은 총장 공백 사태를 염두해 둔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 심의기획실 이호 실장은 "총장 공백 상황을 가정한 논의는 법인 내부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대평의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총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8월 24일 열린 대평의에서 직원대표 안병철 위원은 "차기 총장은 새로운 선출제에서만 뽑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총장 선출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차기 총장을 뽑을 수 없는 형국에 당면한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관계자 A씨는 "총장 선출제 개정이 마지막으로 9월을 넘어간다면 총장 공백 상황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캠 본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대평의

대학평의원회(대평의)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즉각 수용을 법인에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외대 37년 만에 첫 리모델링, 강의·열람실 환경 개선 완료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국제】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대평의가 차기 총장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에서만 선출·임명하자고 앞서 공언한 점 역시 총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

열람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A동 3층에 위치했던 학생 열람실은 2층 통합 행정실 위치로, 통합 행정실은 208호 캡스톤디자인전용 세미나실 위치로, 세미나실은 기존 열람실 위치로 이동했다.

2007년 '캠퍼스마스터플랜'부터 언급된 외대 리모델링 사업은 11년 만에 결과를 맺었다. 2010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냉·난방, 방음, 공간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색의 광장 뒤편 야구장 부지에 외대를 신축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건물을 개조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2011년, 재정문제로 초기 1,795억 원의 규모가 79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은 계속 미뤄졌다.

2014년에는 SPACE21 대표건축가 이현호(홍익대 실내건축학) 교수의 제안에 따라 수직으로 1,000평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강의실 부족 및 소음문제 발생 우려 속에



중단되기도 했다. SPACE21사업단은 1,000평 규모 교수연구동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역시 재정문제로 불분명해졌다.

지난 3월 외대 학생회는 국제캠퍼스 부총장실에 리모델링 사업규모 축소 및 지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부총장실에 따르면, 당초 사업은 2017학년도 동계방학과 2018학년도 하계방학에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자인 개선, 기술적 검토, 구성원 간 논의 장기화, 주무부서 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및 업무진행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연기됐다. 마침내 지난 3월 열린 2018학년도 1차 외국어대학 미래발전 위원회에서 설계 작업이 완료됐으며 시공업체가 선정됐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달 23일, A동 리모델링이 끝났다.

외대 김영주(한국어학) 학장은 "지난여

름 흑서에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일정을 위해 협조해주신 외대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이제 밝고 깨끗한 새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대 행정실 송혜경 실장은 "2학기에도 개·보수 업체가 상주하면서 주말에 미진한 부분을 정비할 예정이다"라며 "B, C동 리모델링은 오는 동계방학에 진행되며 디자인과 공사범위까지 확정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언어교육원 강의실과 한누리소극장을 제외한 B, C동 전체 천장, 벽면, 바닥이 개·보수되고 중앙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우사세·시민교육 통폐합 … 내년 1학기 후마 전면 개편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오는 2019학년도 1학기를 목표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과목 전면 개편을 논의 중이다. 학문적 가치, 인간적 가치에 바탕을 둔 실용적 가치 추구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개편이자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이다. 교수와 학생의 친밀한 교육적 관계 형성도 개편 목표에 포함된다. '후마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 TF팀(실행위원회)'은 "시대변화에 따른 평가방식 및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필수과목 개편을 위시로 교육방식이 개편된다. 기존 필수과목인 인간의 가치 텁색(인가팀),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시민교육, 글쓰기1·2, 빅뱅에서 문명까지 (빅문) 6과목은 5과목으로 축소하며 강좌 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조정한다. 우사세와 시민교육이 '세계와 시민' 과목으로 통합되고 글쓰기1은 '성찰과 표현', 글쓰기2는 '주제연구'로 명칭을 변경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인가팀은 기존 주제를 유지하면서 우사세의 일부 주제를 수용할 예정이다. 빅문은 지난학기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도입한 'Flipped Learning' 방식을 수정·보완하여 75분 동안 토론과 Q&A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강생 수도 서울캠 35~40명, 국제캠 35명 선으로 개편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다큐멘터리 '코스 모스' 보조 교재 활용도를 높이고자 논의

알림

사령

면
〈편집장〉 박지영(언론정보학 2016)
〈국제뉴스팀장〉 설지연(프랑스어학 2015)

명

〈편집장〉 최명규(소프트웨어융합학 2017)
〈국제뉴스팀장〉 이후승(한국어학 2017)
〈서울뉴스팀장〉 안나연(간호학 2017)

전문가 칼럼

질병 극복은 다각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황교선(의학) 교수 ▶7면



시선

사설

도어락에 밀린 총장 선출제

최근 대학주보 홈페이지가 뜨겁다. 연일 이어지는 총장 선출제 관련 기사는 기자들조차 당황스러울 정도의 조회수와 댓글 수를 보이고 있다. 사안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이 뜨겁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기사를 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현데 이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은 기사가 있으니, 바로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도어락을 교체했다는 기사다. 어떤 이들은 댓글을 통해 '대학주보가 총장 선출제 관련 기사와 댓글을 습기기 위해 도어락 기사가 더 상단에 올라오도록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신문은 그러한 행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한들 얻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도어락 교체 기사가 총장 선출제 기사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이 자신의 주거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의 어디가 이상한가?

학생은 그간 총장 선출제 논의에 문외한이었다. 이제껏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고 관심을 가져본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총장 선임의 권한은 오롯이 법인이사회의 몫이었다. 11월로 다가온 현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 대표단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이 외친 구성원 참여는 만 명이 넘는 재학생에겐 가능하지 않았나보다. 총장 선출제라는 중차대한 사안은 기숙사 도어락 교체보다 학생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신문이 무언가 킁기는 부분이 있어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의 기사라면 애당초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어락 기사보다 조회수가 덜 나왔다고 텃활 대상이 잘못됐다. 구성원 참여를 통한 총장 선출제 마련을 주장하면서도 구성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은 있으나 없으나 매한 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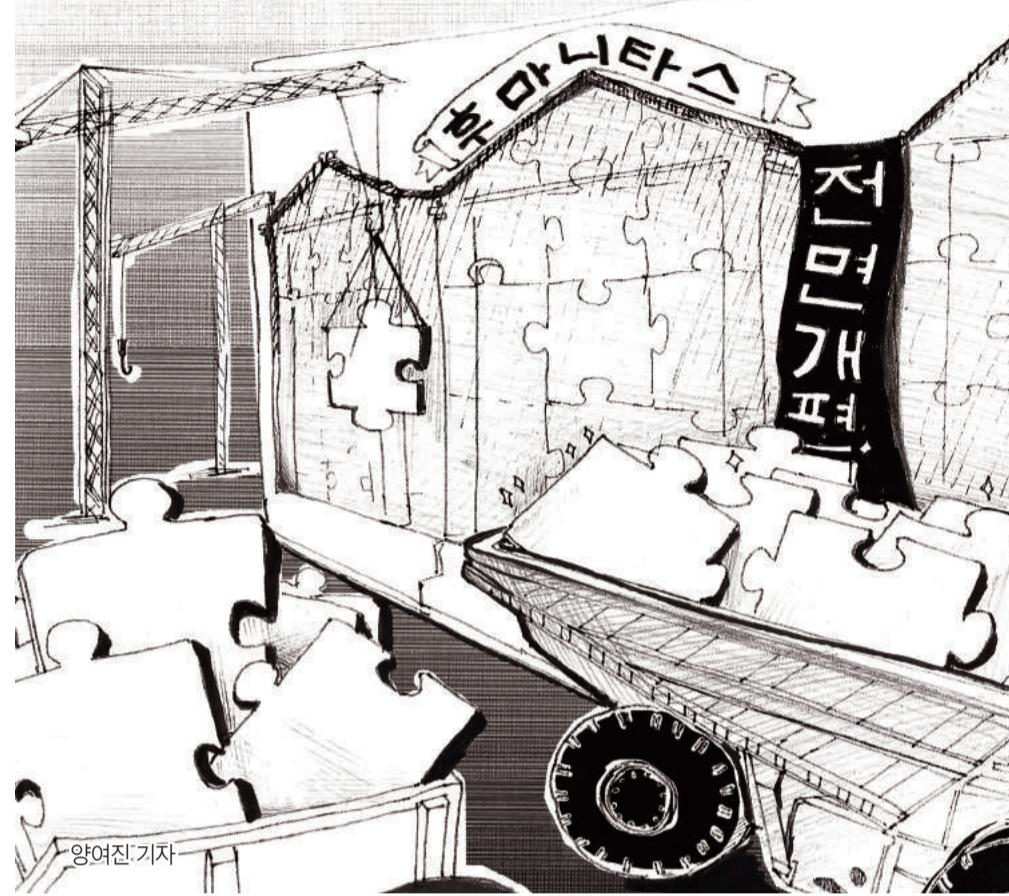
총장 선출이 정치화된 탓에 사례를 담습하면 안 된다는 법인이 반길만한 상황이다. 학내 정치화를, 구성원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려한다는데, 지금이 딱 일부 관계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 아닌지 되물어 봐야 한다.

정치화를 해보자.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의 대표로서 총장을 뽑는 일이다. 그간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총장 '선임'에서 벗어나 이제나마 총장 '선출'을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현 총장 퇴임까지 세 달 남짓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평행선을 이어가는 논의에, 혹은 또 다른 어떠한 이유에 논의를 포기한다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에야 온다. 이 마저도 확신할 수 없다.

이학여대와 성신여대에서 최근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데는 학생의 '휴먼파워'가 크게 작용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돌아왔다. 초읽기에 들어간 총장 선출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타야 할 것이다. 그 물살 속에서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회는 휴먼파워의 구심점이 되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주보는 그 과정에서 63년간 그려왔던 것처럼 사실을 전하며 함께할 것이다.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후마니타스칼리지 개편

현실 문제 해결해야 개편 퍼즐 완성된다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최근 후마는 '후마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 TF팀(실행위원회)'을 조직해 체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실행위원회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방식이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후마 재도약의 목표를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가장 대표적인 변경은 수강신청제 도다. '선착순 수강신청'은 학생 불만이 많은 사항이었다. 한 과목이라도 실수하면 순식간에 전 과목 수강신청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 탓이었다. 특히 모든 학생이 듣는 교양 수업은 경쟁률까지 높다. 우기동 팀장은 "다른 수강 신청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라며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큰 포부를 내비쳤다.

평가방식 개편도 학생을 위한 제도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단순 암기기 필요한 성적평가방식 대신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이해도를 평가하는 역량중심평가로 바뀐다. 학생들이 '학점 따기 쉬운 강의'가 아닌 '얻을 것이 많은 강의'를 선호하게 하는 것이 역량평가의 강점이라고 실행위원회는 설명한다.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실행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실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개편함을 알 수 있다. 실행위원회의 방향성이 확실한 만큼 개편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미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나는 것이다. 역량평가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 대학은 교육을 받는 '학교'임과 동시에 취업에 직결된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학점이 중요한 만큼 학점과 관련된 개편은 학생들 입장에서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필수과목 학생 수 죽소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역량평가는 교수가 학생의 수업 활동 모습을 지켜보고 평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수 조정이 필수다. 강좌와 교수 수요가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결책은 뚜렷이 나와 있지 않다.

현재 시간강사 처우 논란이나 국제캠퍼스 중핵교과 객원교수들의 비정년 전임교수 전환 등 후마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해결된 부분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재도약이 수월하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 나가며 개편을 실행하다 보면 분명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번 재도약으로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만들고, 효과적인 결과를 내서 우리학교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대학 교양 교육의 기준이 되는 후마로 거듭나길 바란다.

당당하려면 실력을 증명하라

세시봉

이후승 (국제뉴스팀장)



"야구 국가대표팀의 은메달을 기원합니다." 이는 지난달 18일에 막을 올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야구 국가대표팀이 받고 있는 '응원'이다. 메달은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값지다. 하지만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6년의 아시안게임 중 4번의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에 보내는 응원 치고는 모순이다.

이런 이상한 응원이 가는 까닭은 바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 때문이다. 병역법 68조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한 박해민(삼성라이온즈)과 오지환(LG트윈스) 선수를 필두로 야구 국가대표팀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다. 하지만 감각과 흐름이 생명인 스포츠 선수에게 약 21개월 가량의 군 복무는 선수 생애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군 체육부대와 경찰청 체육단을 만들어 운동과 군 복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 체육부대와 경찰청 체육단 입대는 만 27세까지만 가능하다.

박해민과 오지환 선수는 1990년생으로 만 28세다. 즉 체육특기병으로의 입대가 불가능하며 현역 입대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노리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체육 특기병 입대 자체가 특혜인데 입대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다른 종목보다 금메달 획득이 쉬운 야구로 병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면제라는 큰 특혜를 받은 스포츠 스타들은 여럿 존재한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싸늘한 응원이 가지 않은 까닭은 바로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실력' 때문이다. 박주영 선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주영 선수는 군 문제를 모나코 영주권 획득을 통해 미룬 사건으로 국민의 큰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보여준 유명한 골 하나로 비난을 잠재웠다.

타 종목에 비해 금메달 획득이 쉬운 아시안게임 야구지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은 험난하다. 어렵게 국가대표에 선발된 만큼 그에 맞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지만 다른 나라 팀은 실업팀 선수나 야구가 본업이 아닌 선수가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고사하고 실업팀 선수가 주를 이룬 대만에 패배하며 자카르타 참사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두 선수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 스포츠에서의 좋은 성적만큼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야도 드물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1등을 하는 선수들은 특혜를 받는 것이 현행법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다. 단,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주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대학은 지금

학내 민주주의 실현 목소리 커져

안나연 기자 na@khu.ac.kr

고려대 총장선출 논의가 학생과 직원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었다.(총학·직노 '총장선출제도 개정 참여' 기자회견/고대신문, 2018.8.13)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일반대학원총학,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선출제도 개정 위원회에 법인과 노조가 배제됐음을 지적했다. 고려대 총장선출규정에 따르면 개정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이사회 의결로 총장선출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학생 대표는 "학생과 노조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참가자격이 있으나 개정위에는 빠져있다"고 말하며 개정위가 지금껏 '밀실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총학은 2학기에 예정된 총장 선출에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홍익대

총학생회, 총장직선제 요구… 무기한 단식 돌입/한국대학신문, 2018.8.1) 총학은 "현재의 총장 선출 방식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통해 총장후보를 추천하면 법인이 이 중 택해 선임하는 방식"이라며 "대학의 3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홍익대 총추위는 교수 20명, 교직원 9명, 학생 4명으로 구성됐다.

연세대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적 변경 시도 의혹/연세춘추, 2018.8.19) 지난달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대가 용역회사와 교섭 중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근로규정에 맞추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서강대에선 지난달 8일 신설 학부의 교육안에 대해 전체학생간담회가 개최됐다.(학제개편간담회, 생산적 논의의 장 됐나/서강학보, 2018.8.13.)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10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등록금, 커리큘럼 등 세부사항 계획이 부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생이 회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박경건 비상 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박경건, 작년 부정근로 이어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또다시 도마 위로/동대신문, 2018.8.10) 타인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과음 때문에 당시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라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 A씨는 "술냄새가 나긴 했어도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총학)가 제안한 학생교류 서한에 김일성종합대학이 긍정적으로 회신했다.(김일성대에서 온 답장 '서울대 학생들과 손잡고 나가겠다'/한국일보, 2018.8.24) 지난달 24일 총학은 페이스북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학생위)의 답신을 6.15 남측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학생위는 "관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서울대 총학생회와 함께 손잡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차기 총장 선출 제도에 '구성원 투표' VS '총선위' 격돌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법인소위원회 개정안>

장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최명규 기자 gyumyeong@knu.ac.kr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를 두고 대학평의원회(대평의)와 법인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8월 7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 결렬 사태의 과정으로 한 때 최고조에 달했다. 대평의와 법인이 차기 총장은 새로운 제도에서만 선출·임명하고자 공연한 가운데,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가 결렬 사태를 맞자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도 무산됐다.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는 대평의와 법인이 지난 5월 25일 '차기 총장, 새 제도' 원칙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7월 5일을 시작으로 대평의와 법인은 7월 한 달 매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이어왔다. 대평의는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 시작과 동시에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을 채택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도입을 법인에 제안했다.

하지만 법인 또한 지난 7월 12일 총장후보 선임위원회(총선위)를 골자로 담고 있는 총장선임법인소위원회(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대평의와 법인은 각각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학내 일각에선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리고 8월 7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는 결국 대평의의 결렬 선언으로 치달았다.

결렬 사태 이틀 만인 지난 8월 9일 대평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법인을 규탄하며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즉각 수용을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렬 사태 나흘 만인 지난 8월 11일 학교법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렬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구성원과 법인이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이사장은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수용에 대해 "관련 논의의 재개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정도로 선을 그었다. 8.7 결렬 사태 이후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는 재개되지 않았고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마저 무산되는 수순을 밟았다. 대신 이 날 법인 이사회는 총장 선출제 개정 권한을 공 이사장과 법인소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했다. 개정 무산 의일인 8월 30일 공 이사장은 대평의와 면담에서 조인원 총장의 4선 포기 의사를 밝혔다. 또한 30일 대평의와 법인은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9월 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모두 '총장후보추천→총장후보 암축→이사회최종선임' 3단계 구조를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선위)가 '총장후보추천' 단계를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선위는 구성원 대표 26명과 법인 이사 4명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 대표 26명은 다시 교수 대표 14명과 직원·학생·동문 대표 각 4명으로 이뤄진다.

총선위는 후보자 공모와 결격자 판별을 통해 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3~5명의 총장 후보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6명의 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총선위가 '총장후보추천' 단계를 마무리하면 총장 선출 과정은 '총장후보 암축' 단계에 접어든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과 법인소위원회의 개정안의 차이점은 '총장후보 암축' 단계에서 나타난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전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를 암축하는 반면,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총선위를 통해 총장 후보를 암축한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에 따르면 총선위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두고 전체 구성원 투표를 시행한다. 표결 결과 최다 득표 2인이 최종 총장 후보로 나온다. 교수와 직원은 직선제로, 학생과 동문은 간선제로 투표를 진행된다. 투표권 비율은 교수·직원·학생·동문이 각각 14:4:4:4이다. 최다 득표 2인 중 한 명을 법인 이사회가 우리학교 총장으로 선임한다.

반면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구성원 대표와 법인 이사회가 동률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선위가 '총장후보 암축' 단계를 맡고 있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이 채택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총선위는 구성원 대표 5명과 법인 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과 법인이 5대5 동률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

는 구조다. 총선위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두고 총선위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뽑는다. 이후 법인 이사회가 3명 중 1명을 우리학교 총장으로 선임한다.

전체 구성원 투표와 총선위는 대평의와 법인이 이번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의 범위를 바라보는 온도차를 보여준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전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 암축' 단계까지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주장하려는 반면,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총선위를 통해 '총장후보 추천' 단계에 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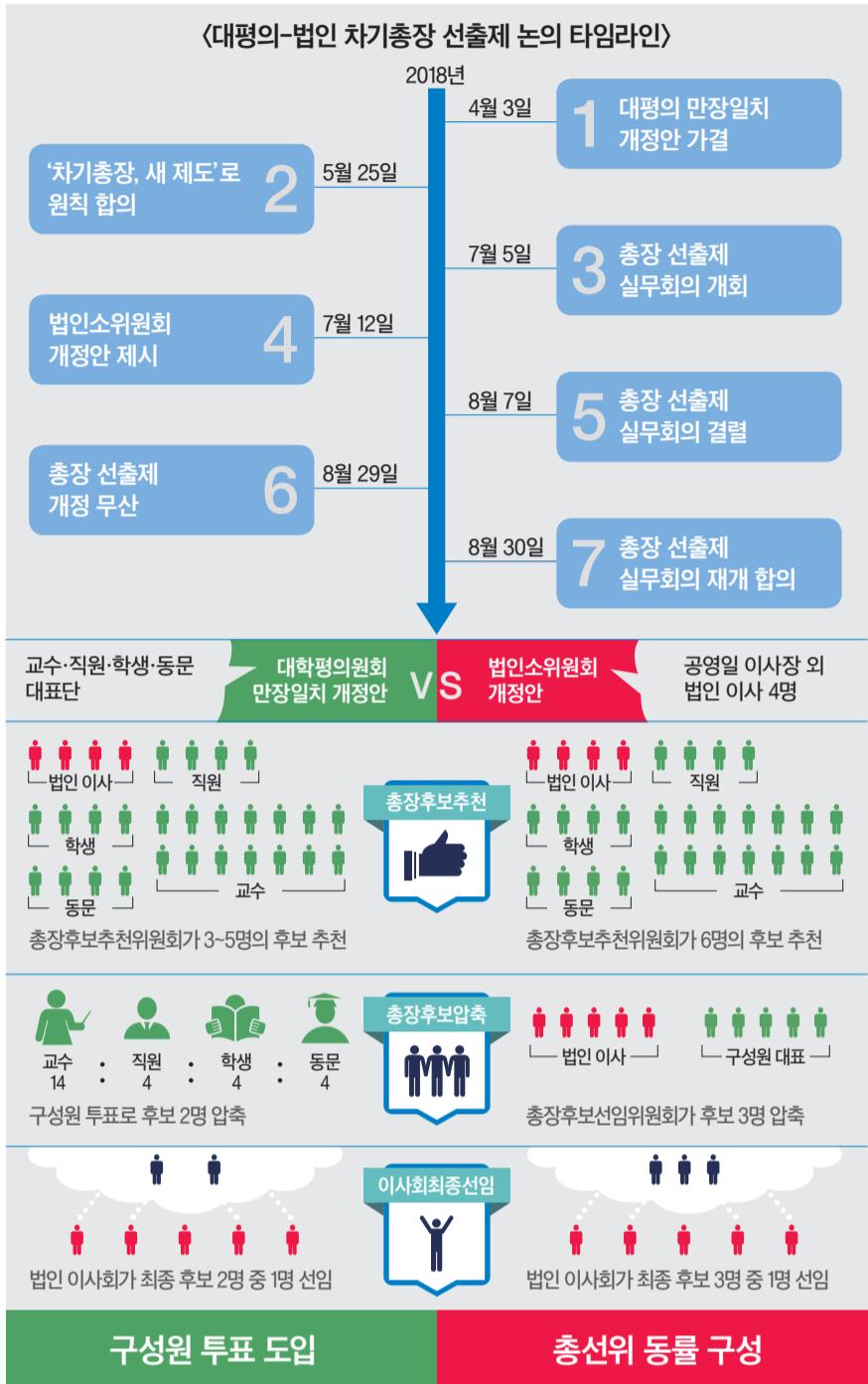
대평의는 총장 선임의 최종 권한이 법인 이사회에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총장후보 암축 단계에서까지 의결권 절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총장 선출 과정 전반을 법인의 영향권에 넣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대평의 이성근(교수의회) 의장은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간선제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대평의 김종현(노동조합) 위원 또한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의 총선위를 두고 "구성원 대표와 법인 이사가 1대1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며 "법인 이사가 구성원의 뜻과 어긋나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제도적 권한이 전무한 제도"라고 말했다.

법인은 총장후보 암축 단계에서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을 채택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이 대학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법인 공영일 이사장은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을 도입한 많은 타 대학에서 총장 선출 전반에 정치화돼 있는 상황을 우리대학이 따라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평의는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정치적이고, 법인 이사들이 불박이로 참여해 기득권을 행사하는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비정치적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포스코'가 출연해 설립한 포항공대의 총장 선출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포항공대의 총장 선출 과정은 총장후보 추천과 이사회최종선임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인 이사가 구성원과 동률에 가깝게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선 법인소위원회 개



정안과 유사하다. 총장후보 추천 단계에 참여하는 총 9명의 위원 중 4명은 포함공대의 법인 이사다.

한편,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 모두가 선거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화여대가 지난 4월 새로 개정한 총장 선출제와 유사하다. 이화여대에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최경희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학내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전체 구성원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마련됐고, 학내 민주주의를 일궈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투표권 비율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7.5%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53.8%가량)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



2017년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후마니타스 공청회에서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이 제도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향상을 지향하는 지표이다. 복합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성 등이 포함됐다. 각 과목마다 해당하는 역량 몇 가지를 채택해 평가에 활용하며 배분·자유 이수 영역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배분이수 영역도 '창의교양', '토대교양', '미래교양' 세 분류로 개편한다. 창의교양

은 상징과 평화, 사회와 문화, 생명과 우주, 분석과 기술 주제를, '토대교양'에는 인문 토대, 사회토대, 자연토대 주제를, '미래교양'에는 소프트웨어, 취·창업 역량 주제를 담았다. 주제에 맞춰 기존 교과목의 재편 및 개편을 진행 중이며 필수교과와 연계되는 심화학습 교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필수교과목이 5과목으로 줄어들면서 배분 이수에서 다른 교과목을 추가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임시로 '인식과 사유방법'이라

이름 붙여진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과 강의실 수업을 병행한다. 일주일에 두 번, 15분 분량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정 전공을 쉽게 설명하고, 75분 간 강의실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이 과목은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배분·자유 이수 영역 교과목 공모 및 강사 공채도 계획 중이다. 미래학, 전환 설계, 기후학, 사회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염두하

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맞는 참신한 교과목 발굴, 신진학자영입이 목표다.

전공과목 교양학점 인정도 논의 중이다.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교양으로 수강할 경우 높은 학점을 받기가 어렵다"며 "학점 부담이 적어진다면 학생의 교양과목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사지원과, 정보처 등 행정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강신청제도도 논의 중이다. 학생이 가진 후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수강신청의 어려움이고 선착순 수강신청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후마 측의 입장이다. 실행위원회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팀장은 "선착순 방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마는 개편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교과 단위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생 위원도 포함된 분과 위원회는 2019년 2월까지 활동하며 주제선정, 교재 개발, 강의 및 학습 방법 개선, 역량 중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방식이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학생의 학습 역량이 길러지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라고 후마 전면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다.

생활

담임교수제, 상담교육·정보축적·학생수 최적화로 내실화 기해야

김지원 기자 kjk990327@knu.ac.kr
양여진 기자 clcl@knu.ac.kr

【국제】 “학생의 인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엔 공감하나, 상담에서 교수가 줄 수 있는 게 부족한 것 같다.” 담임교수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백남인(한방재료공학) 교수가 말했다. 담임교수제는 진로지도를 위해 지도교수가 학생을 도맡아 상담을 이어가는 제도다. 정기적인 대화를 통한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교수에게 선행돼야 할 상담 방법이나 정보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해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4년에 진행한 제2차 생애진로개발세미나 자료에 포함된 대학진로지도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 상담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 중 교수가 36.1%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학교 담임교수제는 이러한 학생의 요구와 취업난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모두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수는 담임교수제를 통해 지정 받은 지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상담을 이어간다. 학기 당 1회 이상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미실시한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 최초 2일간 접속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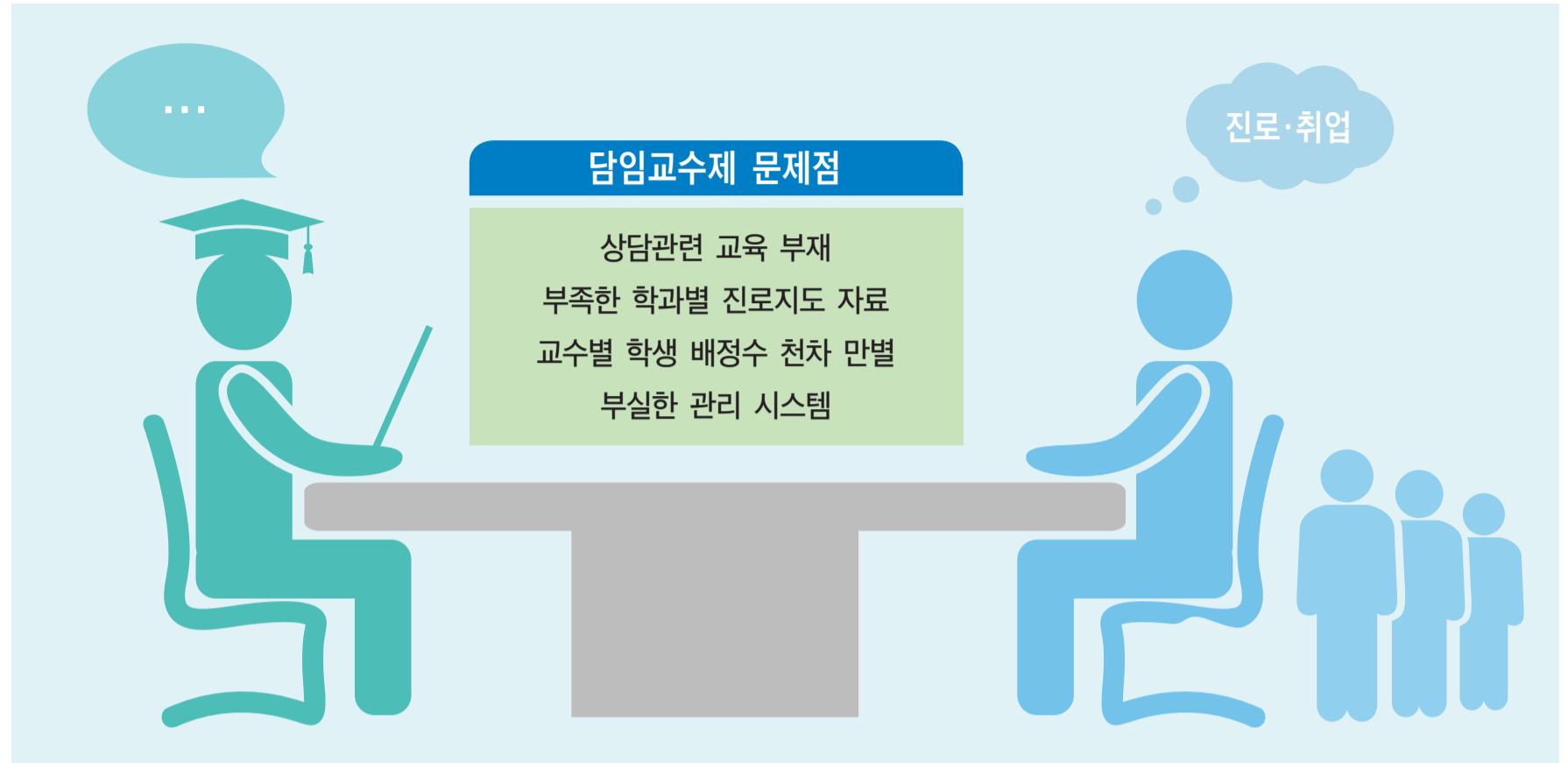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진로상담에서 교수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지연 학회장은 “대학생 진로상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당연히 교수”라며 “교수는 해당 전공의 전문가고 대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학회장은 “대다수의 교수가 면대면 상황에서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난감해한다”며 “상담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 대학은 상담 교육 제공

우리대학도 도입 필요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이효남 팀장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 팀장은 “전공과 관련된 커리어를 탐색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교수인 건 맞지만 학자로서 연구만 하다가 상담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개별적인 상담교육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에는 상담 기술에 대한 교육이 없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쥐



업진로지원처(취진처)는 “상담기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며 “재학생의 진로지도 교육은 전공 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일환기에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수의 역량에 따라 상담의 질이 좌우지되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15년 동아일보 ‘전국에서 가장 경력개발을 잘해주는 대학’ 평가 1위에 선정된 전북대는 2008년부터 ‘평생지도 교수 상담제’를 도입해 교수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실시해왔다. 전북대 취업지원과 흥은희 주무관은 “도입 초기 모든 단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상담 기술을 비롯해 상담 과정에 관련한 다양한 특강을 진행했다”며 “최근에는 교수의 요청에 따라 심리학 특강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상담제가 안착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활발하게 특강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신임교원이 들어오면 신임교원 전체세미나에서 관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이 학회장은 “해외 대학의 경우 대화의 기술이나 방법을 연수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자

료 없이 ‘학자’인 교수가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취업진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백남인(한방재료공학) 교수는 “학과나 대학원 진학 관련 상담은 도울 수 있지만 그런 정보를 원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 외의 취업 관련 상담에는 교수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정보와 관련해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덕영(전자공학) 교수 역시 “진로상담 시에는 졸업생들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취업률, 주된 취직처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학생에게 맞는 상담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학과별 진로지도 자료 없고
지도학생 배정도 천차 만별

교수에게 배정되는 학생 수가 학과 별로 상이해 상담의 질이 균등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상담을 담당하는 교수가 개별적인 학생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서덕영 교수는 “우리 과는 교수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편”이라며 “최대 50명에 가까운 학생을 배정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깊이 있는 상담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연세대가 시행하고 있는 ‘멘토교수제’는 한 교수 당 20명 이하의 학생을 할당해 집중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학과별로도 균일한 상담의 질을 가지고자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만날 기회도 많아진다. 상담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를 함께 관람하거나 동문선배와의 만남 및 기업 탐방을 진행하기도 한다. 인간적인 유대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의 실효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연세대는 멘토교수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단체 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학교 담임교수제는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학기 온라인을 통해 의무상담을 진행한 학생 A씨는 “3월에 보낸 온라인 상담 질문의 답변을 3달이 지나서야 받았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상담 답변 기일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한 불편에 대해 국제캠 취진처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소속 교수님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지연 학회장은 “해외 대학 교수는 강의와 연구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반해 국내 교수진은 다

소 연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각 전공과 관련해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의 유형, 구인정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해 교수에게 전달하면 훨씬 수월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담을 위한 정보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교수의 상담이 질적으로 깊이가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진로고민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진로지도 시 교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학교 차원의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학교차원의 지원 전제돼야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제공 가능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이효남 팀장 역시 진로지도 시 교수와의 면담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며 “대학 내 간담회 등을 통해 상담사례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문제가 연일 회자되는 시기, 대학의 진로지도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한 역할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수제의 취지에 걸 맞는 내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1. 신청대상: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은 2차 신청이 원칙이나,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증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가능

※ 2018-2학기 신청한 재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2. 신청 및 사항제출: 가구원 등록 기간

가: 신청: 2018.08.23.(목) ~ 2018.09.06.(목) 18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기구원 등록: 2018.08.23.(목) ~ 2018.09.10.(월) 18시까지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018-2학기 복학생·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인성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 자격

1) 2018-2학기 복학생 및 재입학생 2)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3) 2018-2학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춘 경우 수혜가능

4) 2018-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3. 신청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6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할 것 ※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2018.09.03.(금) ~ 09.30.(일) 24:00(4주간)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고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000,000원
5	1,200,000원
6 ~ 7	900,000원
8	400,000원

7. 지급일정: 2018.10.26.(금) 예정

8.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우정장학 지원제

1) 2018-학기 상학이 있는 2018-2학기 재학생

2)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3) 최종등록학기 전망장학 수혜자

※ 국가장학금으로 학업장학금(목표800자 이상)

※ 직전학기 교환학생 또는 장기현장연수는 9학점 이상

Pass이어야 학교장학금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2018.08.03.(월) ~ 08.30.(일) 24:00(4주간)

4.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고관)장학금 신청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해묵은 공간 문제 해결 못하는 SPACE21, 소통까지 부재

안수민 기자 ansu95123@knu.ac.kr

지난 7월 13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다음 SPACE21 2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됐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이 '2018 주요 건설 사업 보고'에 대한 대략적인 발표를 진행했고 SPACE21 2단계 사업에 대한 평의원 간 논의가 있었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서울캠퍼스(서울캠)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 신축, 국제캠퍼스(국제캠) 미래과학관 신축, 양 캠퍼스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미래과학관 설립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 계획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이후 관련 행정 처리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는 경희사이버대학의 늘어난 공간 수요 확보, 구성원 안전 확보 및 주차 편의 증대, 정원 외 과정 공간 부족해소를 목적으로 계획 중이다. 서울캠 구 노천극장 자리에 위치하며, 총 약 38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 경영대학원, 글로벌미래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미래과학관은 연구공간 부족 해소,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핵심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캠 구 야구장 부지에 위치하며, 총 약 231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미래과학클러스터, 지역거점연구센터, 미래환경연구소, 천체부영관 등 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7월 공개된 SPACE21 2단계 사업 문제점 지적 이어져

그러나 해당 대학평의원회에서 공개된 계획만 두고 보면 SPACE21 2단계 사업은 '기존 공간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여', '노후시설의 실질적인 수리 미비 및 방치',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족' 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SPACE21 2단계 사업 내용이 공개되자 회의 구성원들은 이를 지적했다.

먼저 그간 양 캠퍼스 학생들이 제기해 온 공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 국제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분리됐지만 여전히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과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공학과 증원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대전공 허용인원 2~3배로 확대로 인해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의 강의 공간 부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좌측 붉은 원통형 건물이 글로벌타워이고 그 앞이 글로벌광장이다. 서울캠 구 노천극장 위에 건축될 예정이다. (사진은 1단계 사업 당시 조감도다.)

국제캠 총학생회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현재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강의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라며 미래과학관이 강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이에 박 대외협력부총장은 "미래과학관은 기본적으로 교육 공간이 아니고 연구공간이다"고 설명하며 "부족한 교육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SPACE21 2단계 사업에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의 강의 공간 부족과 세 단과대학 분리를 위한 계획은 없다.

서울캠 정경대학 학생회는 지난 3월 부족한 공간 해결을 위해 학생회장과 부총장 간 면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본부와 학생 대표들은 부족한 잔여 공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경대학 내 공간이 아니라 구 이과대학, 구 한의과대학 잉여 공간을 제공받는데 그쳤다. 해당 단과대학 내 공간이 모자라 다른 건물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도 이런 정경대학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SPACE21 2단계 사업에서도 정경대학 공간부족문제 해결은 뒷전이다. 직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우선순위를 글로벌타워 건축에 두기보다는 현재 가장 시급한 교육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강의공간 부족 해소보다 사이버대가 먼저?

여기에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가 노천극장 부지(현 농구코트, 테니스코트)에 건립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캠 총학생회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은 "학생들의 유일한 운동공간인 야외 농구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사라질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그는 "주차 공간, 경희사이버대학, 정원 외 과정을 위한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은 "향후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보강

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후시설의 실질적인 수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현재 SPACE21 2단계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교육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정경대 리모델링도 치장만 해놓고 정작 필요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문과대 역시 치장만 해놓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학생회관은 지난 2015년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PACE21 2단계 사업에 학생회관 보수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 C등급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수가 필요한 단계'다. 박영국 부총장은 "학생회관 공간부족 및 안전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다.

SPACE21 사업에 따라 2018년까지 문과대학, 정경대학, 음악대학을, 2019년까지 외국어대학, 중앙도서관, 자연사박물관,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 천문대

등의 노후시설을 총 약 1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SPACE21 1단계 사업 때도 지적됐던 소통문제는 또 다시 불거졌다. 학교 측과 구성원이 알고 있는 정보간의 고리감이 존재했다.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공개된 사업 계획 역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의 목적 역시 '주최 측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었다. 직원 노동조합 김영진 사무국장은 "구성원들에게 이해를시키고 충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대학공사인 만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학평의원회에서 SPACE21 2단계 사업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며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앞서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 발족 과정에서도 직원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 5월 24일 노동조합은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 통폐합과 복원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와 설명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SPACE21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통 부족하다는 의견

사실상 SPACE21은 구성원들의 의견과 필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논의에서 보여주듯이 서울캠 학생회관, 문과대학, 정경대학, 국제캠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 관의 부족한 공간마련 미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리보다는 치장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직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실질적인 건물 이용자로서 불편한 점이 꽤나 있었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SPACE21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굳이 교내 한가운데로까지 경희사이버대학을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했다. 직원 노동조합 김영진 사무국장은 "사이버대학이 교내 중앙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경희사이버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네오르네상스관 위에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희사이버대학은 SPACE21 2단계 사업에서의 원래 계획대로 글로벌타워 공간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캠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 정승환 과장은 "아직까지는 미래과학관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설계내용이 없다"며 "10월 즈음에야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난항 겪는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임시사용기간 2020년까지 연장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서울】 지난 8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행복기숙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2년 뒤인 2020년 8월 22일까지 연장됐다. 학교는 앞선 8월 8일 정식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는 쪽을 선택했다.

동대문구청이 처음 행복기숙사의 임시사용승인 결정을 내릴 당시 학교 측에 제시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행복기숙사 완공 이후 동대문구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년간의 임시 사용승인 조치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행복기숙사 건물이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인접 공공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 영향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건축법」 제 22조 3항은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도로 미확보 이유로 정식 사용승인 반려

처음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구청은 학교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교통영향평가 기준 충족을 위한 공공도로 확보, 둘째는 기숙사 건립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이었다. 이에 학교는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주민과 대학 간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공공도로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식승인의 발목을 잡았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016년

내려진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동대문구청 사이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이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법인의 사유지라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대문구청이 법인 측에 그간의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구청은 이 판결이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상정한 행복기숙사의 건축 인허가서 내용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경희대로 이용 두고 학교 - 구청 간 입장차

동대문구청 건축과 임영진 주무관은 "경희대로는 이전까지 암묵적으로 공공도로로 취급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다"라며 "경희대로를 다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자 한

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 당국이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계획에 따라 지정하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권자와 권리의 대여, 혹은 이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학교 총무관리처 박명진 처장은 "법인과 학교로서는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구청은 지금까지 공공도로로 기능하면서 구청에서 비용을 들어 관리해 온 도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니 곤란한 것 같다"라면서도 "지금은 대학과 구청이 서로 반목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원·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회장은 "행복기숙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학생의 실질적인 거주공간인 만큼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 행복기숙사 임시사용승인을 대변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위 주최 등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건물 자체에 이상 없다 해결 방안 모색 중

한편 현재 한의대, 이과대, 간호대가 사용하고 있는 신축단과대학동 건물 역시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오는 12월 7일 만료 예정이다. 박 쳇장은 "가급적 12월 이전에 해결을 보려고 한다"며 "건물 자체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로 2년 뒤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자는 않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후마의 목적지는 “종합적 세계관 갖추는 것”

미래교양리포트 : ① 후마의 어제와 오늘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 대학 교양 교육이 위기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4차 산업의 시대가 교양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교양 교육 또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당면한 현실 속에서 교양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 신문은 ‘미래교양리포트’를 준비했다. 앞으로 5회에 걸쳐 교양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써 내려가고자 한다. 이번 개강호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역사와 현 주소를 통해 미래 가치를 짚어 봤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0년 9월 17일, 우리나라 대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우리학교에서 발생했다. 바로 교양 교육 전문 단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설립이다. 실용적 학문으로 내달리던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우리학교는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 후마를 설립하고, 교양 교육 편제 개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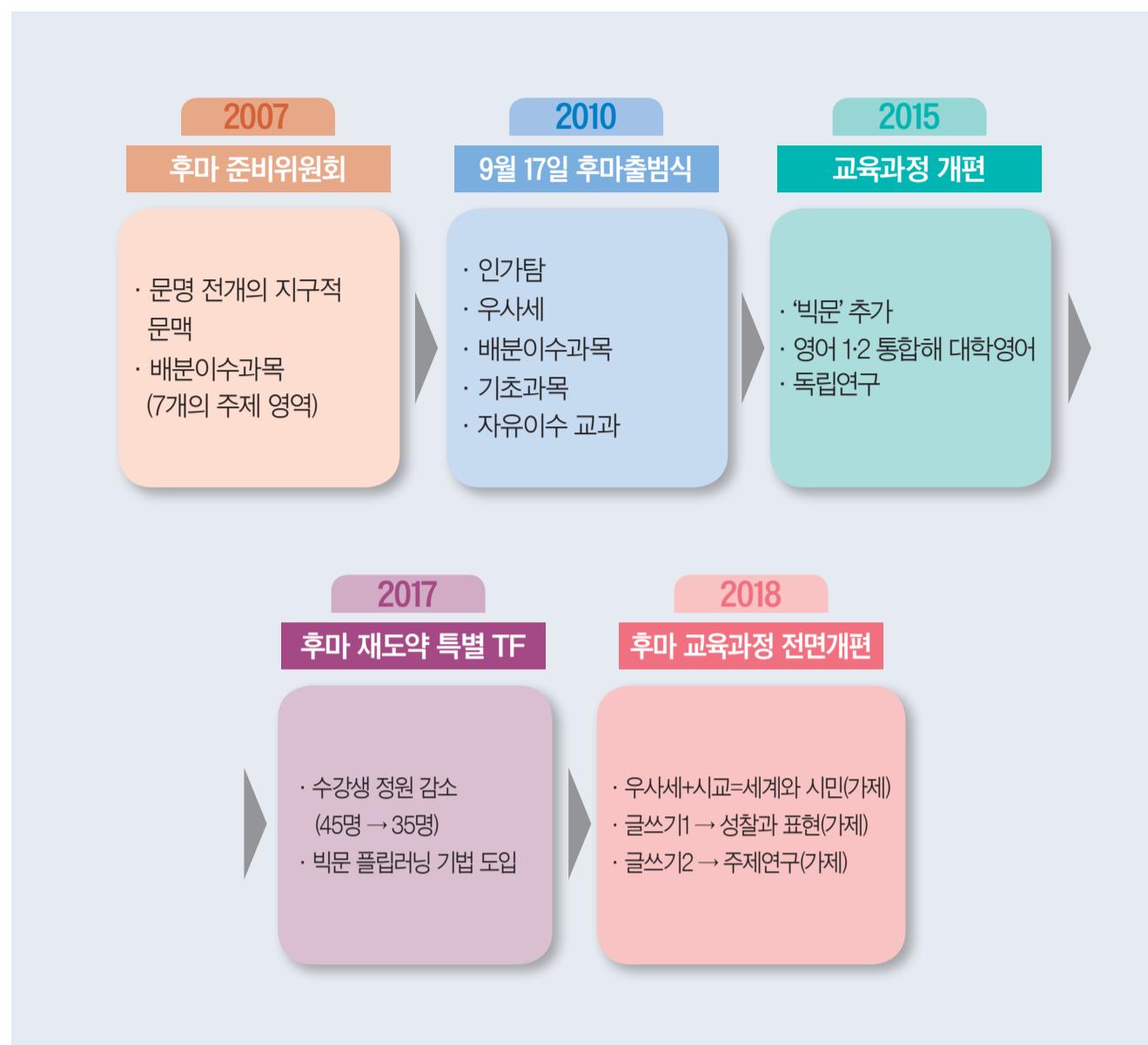
당시 중앙대는 전교생에게 회계과목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며 교양 교육의 방점을 취업에 두고 있었다.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실용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우리사회는 대학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학교는 달랐다. 실용적인 학문보다는 인문학을 중시하며 삶의 가치관 형성과 윤리적 책임, 봉사정신 함양에 교육의 가치를 뒀다. 보다 성숙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우리학교의 도전은 취업에 유리한 전공이 각광받던 시대 흐름 속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은 우리사회를 더 멀고 깊게 내다보며 어디에서라도 창조적이고 정직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취지 아래, 후마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실용적 학문보다

인문학을 중시한 후마

2007년부터 후마 준비위원회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1·2를 비롯해 7개의 주제 영역 중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배분이수과목을 통해 교양 교육과정을 준비해왔다.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을 선도하는 교양 교육의 패러다임



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0년 9월 17일, 역사적인 후마 출범식에서 도정일 전 후마 대학장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설정하고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중핵과목은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1 : 인간의 가치탐색’,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2 :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대학 공동체가 공동의 지적 주제를 공유하고 탐구 경험을 갖게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교양 과목의 산만한 배치를 조정하고 과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분이수과목’,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기초과목’,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지적 필요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수교과’가 만들어졌다.

지난 2015년에는 후마 신설 이후 첫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뤄졌다. 과학을 주제로 신설된 제 3의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추가됐다. 또한 영어 1·2를 통합한 대학영어가 등장했다. 학생 스스로 교과 개발과 수행을 권장하기 위한 ‘독립연구’도 새로 얼굴을 비쳤다. 이에 더해 올해 초,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이 도입되며 지금의 후마가 완성됐다. 그리고 오는 2019학년도 1학기 후마가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취지는 대다수 공감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 68.6%

후마가 출범한지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지났다. 대학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도전과 많은 편제 개편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오늘날 우리학교 학생들은 후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신문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양 캠퍼스 학생 11,158명을 대상으로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258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현재 후마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 중 73.64%가 이러한 교육 목표에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26.36%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교육 목표에 공감하는 것과는 달리 교양 교육에 불만족하는 학생이 68.6%나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우리학교 교양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수업 방식 및 교수법을 꼽았다. 과목 수, 교육 콘텐츠,

교수진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과목으로는 시민교육(26.74%)과 인간의 가치탐색(16.67%)이 꼽혔다. 신입생 세미나, 우리가 사는 세계, 빅뱅에서 문명까지 과목이 뒤를 이었다. 그 이유로 자신의 노력만큼 학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만족하는 과목으로는 27.91%가 선택한 배분이수를 필두로 글쓰기, 인간의 가치탐색이 뒤를 이었다. 듣고 싶은 과목이 다양한 분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배분이수에 만족하는 이유였다.

응답자의 38.37%는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 습득’을 교양 교육의 본질로 들었다. 다수의 교양 교육 전문가들도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 교육과 차별된 교양 교육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다. 후마 설립을 주도한 후마 도정일 전 대학장은 “전공이 한 학문만 깊게 가르친다면, 교양은 여러 학문 간 관계를 보고 이를 융합한다”고 말했다. 한국 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 역시 융합을 지향하는 교양 교육의 가치가 결국 ‘교육 본연의 가치’라고 말한다.

“교양은 전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세계관을 갖추어야 해”

교양 교육 전문가들은 융합적 사고가 함양되도록 비판적 사고가 전제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각각에서 분석하는 법을 알면 자신에게 주어진 틀을 깨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는 궤를 같이 이룬다는 것이다. 도 전 대학장은 교양 교육의 목표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교양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힌다”고 말했다.

교양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은 전공 교육과 다르다. 한국교양 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은 “한 분야를 심화하는 게 전공 교육이라면 교양 교육은 보편적인 지적능력을 함양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직업을 정년 때까지 고집했던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흥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양 교육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18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접수기간	정규 등록 기간 : 2018. 08. 20(월)~09. 07(금) 16:00까지 추가 등록 기간 : 2018. 09. 10(월)~09. 14(금) 16:00까지	강의기간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8. 09. 10(월)~10. 19(금) ※ 휴일로 인한 보강은 따로 진행합니다.	Level Test	영어회화 : 2018.09.05(수), 09.06(목) 17:30 일본어회화 : 2018.09.06(목) 17:30 중국어회화 : 2018.09.05(수) 17:30	Sample Lecture	영어 : 2018.09.05.(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강의시간표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수강료	150,000원	훈련일자	9월17(일) ○ 국제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9월18(월) ○ 체육대학 9월19(화) ○ 전자정보대학·전자공학(2, 3, 4학년) 10월1(일) ○ 전자정보대학·전자공학(학년), 생체의공학 ○ 생명과학대학 10월2(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건축공학 ○ 동서의과학과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0월5(금) ○ 공과대학·전자공학, 화학공학 10월8(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건축공학 10월10(수)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우주과학 ○ 교직원 10월11(목) ○ 홍성기대학·환경학, 우주과학 ○ 외국어대학 10월12(금) ○ 대학원(일반, 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영어 회화	시간	Beginning / Low-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훈련 대상 학과	9:00 ~ 18:00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7:45~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강료	90,000원	시간	
일본어	시간	Ted Talk / 초급·중급 이상	Ted Talk / 초급·중급 이상	수강료	90,000원	10:00 ~ 18:00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수강료	150,000원	10:00 ~ 18:00	
스페인어	시간	초급1 / 초급2 / 중급2 / 고급	초급1	수강료	150,000원	10:00 ~ 18:00	
프랑스어	시간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1 / 고급2	초급1	수강료	150,000원	10:00 ~ 18:00	
독일어	시간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10:00 ~ 18:00	
접수기간		오후반 18:00~19:30 (월, 수)	오후반 18:00~19:3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1. 개요 가. 예비군 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안성예비군훈련장(안성시 금석동)/네비케이션 : 안성예비군훈련장(검색) * 용인예비군훈련장 공사로 인하여 안성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됨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강의기간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령)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착용 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가 가능함 나. 신분증(회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지참자는 입소 불가	
Level Test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3. 교통 안내 가.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30분)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 홈페이지 훈련장 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Sample Lecture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4.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일시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중.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보내는 계좌명기기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확인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사. 학과별 훈련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안내부문(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접수기간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4.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일시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중.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보내는 계좌명기기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확인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사. 학과별 훈련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안내부문(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강의기간		18:00~20:00 (화, 목)	18:00~20:00 (화, 목)	4.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일시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중.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보내는 계좌명기기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확인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사. 학과별 훈련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ibgun1.mi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안내부문(전화 031-201-3265-			

질병 극복은 다각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교수칼럼



최근 의학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바 '건강 100세'를 꿈꾸고 있다.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의 발생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38.6%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과 치매'이고, 이러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진단·치료 관련 체감도는 매우 낮다. 얼마 전에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암과의 전쟁 면역항암제의 도전'에서 면역항암제에 대한 효과가 방영되며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현실적 어려움이 주목 받았다. 치매의 경우에도 현재 확실한 치료제 없이 인지기능개선제의 처방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 및 질병 발현 지연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질병 극복을 위한 접근 방법'이다.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있어서 국가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중에 'Brain Initiative'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3조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해 주요 질병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미래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선제적, 공격적 대응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 연구 과제



환자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임상의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질병 치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진=중앙일보 DB)

를 통하여 암과 치매 등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조금 더 체계적인 질병 극복 접근방법을 생각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병 극복 접근 방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상 의료진들의 효과적인 제안'이다. 환자와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임상의들의 요구가 질병 극복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소통 방법, 검사 방법을 제안하여 연구와 제도 개선의 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임상 의료진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전주기적 연구'이다. 예방, 진단, 치료, 예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질병의 전주기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질병의 발현 과정을 밝혀내어 원인을 분석하고 발현 가능성은 차단하는 기술, 질병의 발현 유무를 간단한 검사만으로 알 수 있는 질병 표지자(disease biomarker)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 조기 진단·예후 관리 프로토콜 개발로 임상의들의 효과적

인 판단 가능성 증진 등 다양한 연구를 동시다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기 진단에 의존하는 지금의 질병관리가 아닌, 미리 예측해 질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질병 발병 시 가장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빅데이터로 찾아내는 꿈 같은 현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세 번째는 '국가 사회적 노력'이다. 신약, 새로운 진단기기 등이 병원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니 만에 하나 있을 위험성도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규제에 간접 환자의 희망을 꺾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가 허가 승인 절차를 대폭 줄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만 있도록 개선한 것은 매우 올바른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개선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예산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로 인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동반진단'의 식약처 허가비율이 매우 낮다. 동반진단은 '어떤 약이 작용하는 원리가 특정 유전자·단백질이 체내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으므로, 약물 처치 전에 검사를 통해 특정 유전자·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약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약이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구분 없이 투여해 발생할 수 있는 치료 효과와 저하를 사전에 차단해 약물 투여 비용을 절감하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선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질병 극복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한다. 기존의 노력이 의료 관련 종사자들만의 노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이니, 질병의 극복도 의료계, 과학계, 사회, 국가가 융합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올 가을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 암병원 개원도 이러한 노력의 중요 한 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 연구 과제

언어 습득의 비밀 - ①

외국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유학 시절 언어 습득 수업에서, '사춘기 이후의 언어 습득은 매우 어려워 온전한 습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교수의 설명은 한없이 불완전한 내 영어에 면죄부라도 주는 듯 솔깃했다.

인간은 언어 습득에 대한 태도 난 능력이 있어 특별한 노력 없이 누구나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나 그 능력은 특정 시기, 즉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소멸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다. 대부분 온전한 습득을 보이고 있는 모어 습득이 한 예다.

모국어 습득능력

결정적 시기 존재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국어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저절로 배우고 능숙하게 사용한다. 반대로 프랑스 솔속에서 야생으로 발견되는 평생 몇 개 단어만 사용하며 살았던 Victor의 사례 등 제때를 놓친 후 끝내 모어 습득을 이루지

못했던 예도 있다.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행동 발달 연구에서 비롯된다. 언어학자 에릭 르네버그(Eric Lenneberg, 1967)는 사춘기 이후 뇌손상이 일어나면 실질적 언어 복구가 불가능한 반면, 손상이 좀 더 이른 나이에 일어나면 복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사춘기 전후를 분기점으로 뇌의 유연성 정도를 구분했다.

정작 결정적 시기가 성인의 외국어 습득에까지 확대 적용되자 성인의 외국어 습득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완전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이미 사춘기 이후의 제한된 언어 습득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

모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의 존재는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법은 사춘기 전후를, 어휘는 그 보다 늦은 20세 전후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중 소리 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자못 신기하다.

생후 한 달된 유아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모든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후 6~12개월 사이, 소리에 대한 보편적 민감성은 줄어들고 1세 전후에는 소리 체계 구성이 현재 듣고 있는 언어에 맞춰 민감해진다고 한다. 즉 소리 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생후 1세라고 한다.

외국어 학습에도

결정적 시기 적용될까?

그렇다면 결정적 시기는 외국어 학습에도 적용되는가? 외국어 학습에서 결정적 시기를 연구한 Johnson과 Newport(1989)는 한국과 중국 출신 이민자를 이민 시기에 따라 15세를 기점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후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시행했다. 결과, 15세 이전 이민자 집단에서 모어 화자 수준의 문법성 획득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외국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15세임을 주

참여마당

호텔관광대학 학생회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회장



학생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지난 학기 말, 그동안 참여 부재로 의미를 잃어가던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근 4년 만에 성사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학내 시설, 교육 등 6가지 안건에 대한 학생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대학본부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학생 요구안에 대해 대학본부와 학생 간의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가지는 힘을 보았기 때문에 공백이었던 4년이라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호관대 편제 개편 논의 20년

학생 사회 무관심 여전

내가 속한 호텔관광대학의 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변경됐다.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현재 2개 학부, 6개 학과, 2개 특성화학과 편제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년 동안 지속된 논의의 본질은 결국 전공의 전문성과 유기성 사이에서 나오는 간극이다.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날을 세우고 있고, 20년간 논의되었음에도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대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심도 있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정립된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은 자신이 속한 단과대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다. 소문만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차이인지, 무엇을 두고 논쟁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사회의 무관심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편제개편 설명 간담회에는 10명 남짓의 학생만이 참여했다. 운영위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학생 관심 부족

소극적 정보전달도 한 몸

학교의 소극적인 정보전달도 역시 문제다.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 없이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을 진행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호텔관광대학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립된 체계로 안정적인 방향을 설정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인재로 성장하려면 이번 편제개편이 기지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표현해야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똑같다. 비단 호텔관광대학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단과대학의 대표자로서 소속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의견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리는 경희대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장했다. 다수의 후속 연구들도 13~15세를 전후로 외국어 학습의 용이함이 현저하게 다름을 발표했다.

그러나 Johnson과 Newport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연구에서 15세에 숙달도가 비연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므로 15세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최근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는 없다고 한다. 아동이 외국어 습득에서 보이는 천부적 재능은 결정적 시기의 존재를 암시하나 외국어 학습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양과 질에 있어서 급속한 변화를 겪는 경계 시기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0~60세까지의 이민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 숙달도 보고를 이용해 나이와 숙달도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숙달도가 심하게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났으나 언어 기능에 있

어서 비연속적 단절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숙달도의 하락 원인을 특정 시기가 아닌 인간의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인지 능력 저하에서 찾았다.

외국어 학습, 시기보단

학습 조건과 환경이 중요

외국어 습득에서 나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은 분명하나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닌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언어가 발달하는 데 대략 20년, 기본 구조 습득에 5년, 그리고 복잡한 문법의 완성에 10년 이상이 걸림을 적시하며 결정적 시기가 아동의 언어 습득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더디고 어려운 외국어 학습의 지난함에 대한 부산물이라는 Aitchison(1996)의 지적은 타당하다.

기고

꿈을 이루고 싶다면 끊임없는 준비와 도전으로

경희人(in) 실리콘밸리 : ① 변영효 동문

김도훈, 유재우, 류성한 학생

#.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우(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공룡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를 대학주보를 통해 소개한다. 첫 순서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서점, Amazon.com에 재직 중인 변영효(컴퓨터공학 2005) 동문의 이야기다.

“아마존닷컴에서 웹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도구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밴쿠버 지사에서 만난 변영효(컴퓨터공학 2005) 동문의 담백한 자기 소개였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첨단산업의 대명사와도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이 아니었다. 변동문 역시 이번 글로벌융합설계장학 해외탐방을 통해 만난 동문 중 유일하게 실리콘밸리 밖에서 만난 사람이다.

직구족에겐 아마존닷컴이란 이름이 익숙할 것이다. 아마존닷컴은 1994년, 최초의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하며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 됐다. 지금은 자신들의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종합 IT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했다.

직업인을 만나 ‘왜 이 일을 선택했나’ 하고 물어보면 ‘우연한 기회에’, ‘어찌다보니’ 하고 대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변동문은 달랐다. 처음부터 개발자였고 처음부터 IT였다. 다만 그가 아마존닷컴에 정착하기까지 거친 길은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가 처음 노린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비주얼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이 있어요. 그 도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IT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주얼스튜디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공 서적도 무조건 원서로 만 샀다. 미국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영어



아마존닷컴에서 만난 변영효(컴퓨터공학 2005) 동문은 여러 도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지금 돌아보면 각각의 경험이

여기 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에 우선 익숙해지고자 했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학생 파트너(MSP)’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으로도 활동했다. MSP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IT 관련 교육과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과정에서 자사의 미래에 쓰일 인재를 찾기도 한다. 변동문에게도 활동 중 미국 본사 인턴 제의가 왔다고 한다. “좋은 기회였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미국 진출을 뒤로 하고 졸업 후 변동문은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취업 전선에 내몰린 이들이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대기업이지만 변동문은 그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고, 퇴사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결정이었다. “삼성에선 다섯 명 중 세 명이 박사였어요. 논리력과 공부량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큰마음 먹은 결정이었으나 결국 그가 유학 길에 오를 일은 생기지 않았다.

“유학 준비 하다가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과 스타트업(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시작했어요. 동생이 디자인을 하고 저는

개발을 맡아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개발했지요.”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스타트업에 2년의 시간이 들었다. “대기업에 있을 땐 무슨 일 하는지 설명 안 해도 인정받았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은 금여도 없이 일했어요.” 그래도 변동문은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립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스타트업은 오로지 내 사업이고, 개척해야 해요. 일단 잘 키워서 크게 만들면, 그 다음은 잘 풀리죠.”

변동문은 주거래 은행의 ATM기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기만 했지 운영과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없었죠. 유지보수가 안되니 혹평이 쌓이고 매출도 없어져 앱스토어에서 철수한 경험이 있어요.” 이때의 경험은 스타트업 운영의 밑거름이 됐다.

변동문은 도전을 권했다.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 되긴 했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에 진출했지만 그 전까지 많은 실패를 겪었고 아마존닷컴만 해도 두 번이나 탈락했어요.”

현재 그의 옆엔 9수 끝에 아마존닷컴에 입사한 동료도 있다고 했다. 역사를 전공하고도 하고 싶은 일을 찾다 아마존닷컴에 빌드를 들인 동료가 있다고도 했다. “20대에 바라본 10대 시절, 30대에 바라본 20대 시절은 분명 달라요.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미에 변동문은 택하지 않았던 한 가지 도전을 꼽았다. “ATM Finder를 개발했을 때,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신저를 같이 만들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네이트온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관심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쓰는 그 메신저가 됐네요.” 그 때 도전했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변동문의 웃음은 끊임없는 준비와 도전이 만든 결과였다.



대학주보 6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우리학교 1~3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전형 일정

- 지원서 작성 : 8월 27일~9월 9일

- 면접 일시 : (국제)9월 11일 (서울)9월 12일

-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 방법

- 1차 입사지원서(지원서 작성 기간 중 제출) - 면접일 당일 면접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nu.ac.kr/khunews)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주요업무

- 학내뉴스 아이템 발제 및 취재

- 온라인 혹은 지면발행 기사 작성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 (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해외 취재 기회 제공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메시지: 대학주보 페이지 접속 후 관리자에게 메시지 보내기

- 문자 : 010-4930-4955 (최명규 편집장)

- 이메일 : khunews@knu.ac.kr

- 전화 : (서울캠퍼스 편집실)02-961-0095 (국제캠퍼스 편집실)031-201-3232